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26)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I. 북아메리카

[미국]

1. (2022년 7월 11일) 농업 노동 환경 개선 프로그램

- 미국에서의 농식품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와 함께 국가 식량안보 위험이 발생함.
- 농식품 산업의 경제 기여는 약 7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농식품 산업은 국가 경제 활동에 1/5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GDP에 직접적으로 2.7조 원을 기여하고 4,0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 Feeding the Economy(<https://feedingtheeconomy.com/>)의 “U.S. Food and Agriculture Industries Economic Impact Study” (2022) 참조
- 농식품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농업 노동자들과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들의 식량안보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식품시스템과 공급사슬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업의 노동 불안정성, 비정규 이민 문제 해결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와 유관 연방기관들은 American Rescue Plan에서 최대 6,500만 달러를 투입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민 농업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노동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① 안정, ② 합법적 이민 통로 및 보호, ③ 인도적인 이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재정 투입을 통해 미국 내 농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북중미 지역의 계절 H-2A 비자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및 안전 기준 강화를 하고자 함.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IDF Kore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25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 이러한 조치를 이루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사슬의 회복력 강화와 세 가지 주요 행정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것임.
- (1. 식량안보 강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노동 부족을 해결하고자 함. 코로나19 이전에도 고용주들은 노동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미국 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협하게 됨.
-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재적 농업 노동력 풀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함.
- (2. 비정규 이민 해결 및 합법적 통로 확대) 미국 정부는 북중미에서의 비정규적 이민(irregular migration)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H-2A 비자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이민 통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H-2A 비자를 통한 계절 노동자 수급은 농식품 공급사슬의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노동자 모두 효율적으로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농업 노동자를 위한 근무 환경개선) 근로 환경은 농식품 공급사슬의 회복력 강화에 매우 중요함.
- ⇒ 파일럿 프로그램은 근무환경을 개선하되 특히, H-2A 비자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인력 모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한 후,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3년 초 작물 성장기가 시작하기 전에 시행될 예정임.
- 농무부는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UFW)와 파트너십을 맺고 파일럿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과 홍보를 맡길 예정이며, UFW는 농업인, 농업 노동자, 농업 노동조합 등과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 노동 환경 개선 프로그램’,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7. 2022년 7월 11일자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Invest up to \$65 Million in Pilot Program to Strengthen Food Supply Chain, Reduce Irregular Migration,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Farmworkers” (2022.6.10.) (<https://www.usda.gov/>)

II. 유럽

[영국]

1. (2022년 7월 17일) 英 낙농업계, 만성 인력난에 원유 생산 차질 - 생산량 감소는 물론 식품 가격 상승 부채질

영국 낙농업계의 만성 인력난에 원유 생산 차질이 커지며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알라푸드 영국지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장주 10명 중 8명이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렉시트와 코로나19로 인해 EU 근로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걸리며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의 원유 생산은 이미 인력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착유 횟수 또는 사육두수를 줄이는 등 대처에 나섰다며 응답자 중 12%는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다면 내년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알라푸드는 인력난이 악화될 경우 원유 생산량 감소는 물론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하고 식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환경식품농림부(DEFRA)에 인력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英 낙농업계, 만성 인력난에 원유 생산 차질- 생산량 감소는 물론 식품 가격 상승 부채질’,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7월 14일자

- 원문출처 : theguardian.com, 7월 7일자

Ⅲ. 아시아

[일본]

1. (2022년 7월 11일)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량 안정공급에 관한 리스크 검증(2022)-코로나19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새로운 리스크 발생으로 식량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어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6월 21일, 식량 안정공급에 관한 리스크 검증 결과를 발표함.

<배경·목적>

- 일본 식량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국내외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 발생으로 식량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량안보에 관한 농림수산성 내 검토 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일본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식량 안정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원인(리스크)을 색출하여 포괄적인 검증을 시행하였음.

<검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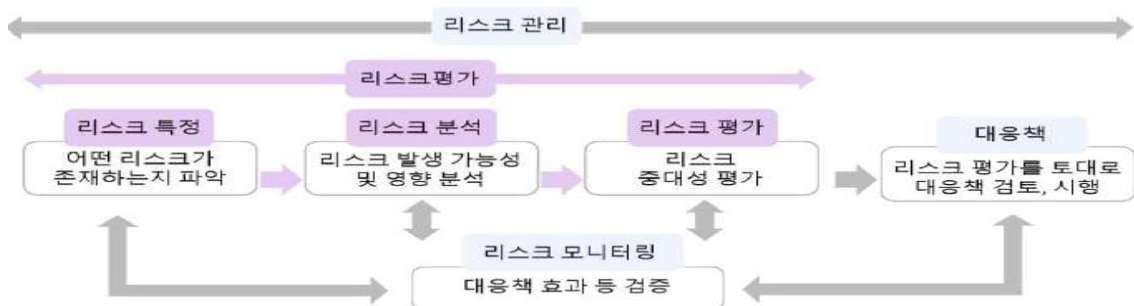
- 리스크 관리 국제규격 ‘ISO31000’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했음.
- (리스크 특정)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안전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색출하여, 국내 리스크 10종※, 해외 리스크 15종※※ 총 25종의 리스크 대상으로 선정함.
- ※ ① 노동력 부족·후계자 부족, ② 농업인 이외 관계 인재·관계 시설 감소, ③ 황폐농지·농지 전용, ④수요변화, ⑤수요급변, ⑥공급망흔재, ⑦이상기상, ⑧온난화, 고온화, ⑨가축 전염병·식물병해충·어류질병, ⑩지적재산유출
- ※※ ①(해당품목) 공급량감소, ②(해당품목) 가격상승, ③(해당품목) 품질저하, ④연료용 기름수입감소/가격상승/품질저하, ⑤비료원료수입감소/가격상승/품질저하, ⑥종자 수입감소/가격상승/품질저하, ⑦종묘수입감소/가격상승/품질저하, ⑧농약수입감소/가격 상승/품질 저하, ⑨ 동물용 의약품 수입 감소/가격 상승/품질 저하, ⑩ 농업 기계 수입 감소/가격 상승/품질 저하, ⑪ 포장용 자재 수입 감소/가격 상승/품질 저하, ⑫ 기타 생산 자재 등 수입 감소/가격상승/품질저하, ⑬수입원재료감소/가격상승/품질저하, ⑭국제 환경대응, ⑮조달처 변경

- (대상 품목 선정)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생산 노력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24개 품목을 기본으로 식량 산업 4가지 업종(식품 제조업, 식품도매업, 식품소매업 외식산업) 및 임업(목재) 등을 더한 32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함(칼로리 기준 98%를 다룸).
- (리스크 분석) 검증 대상 25종 리스크에 대해 각각의 개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 ‘리스크 시트’를 작성하여, 대상 32품목에 대해 각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와 영향도를 분석하였음.
- (리스크 평가) 리스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로 ‘발생 가능성도 5단계’, ‘영향도 3단계’로 평가하여, ‘중요 리스크’와 ‘주의 리스크’를 특정함.

<검증 결과>

- [일본 식량 공급] 국산과 수입 상위 4개국(미국·캐나다·호주·브라질)에서 공급 칼로리 85%※를 차지하고 있음.
- ※ 국산 37%, 미국 23%, 캐나다 11%, 호주 8%, 브라질 6%
- [수입] 가격 급등 리스크는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 품목 중, 사료곡물 등에서 이미 표면화하고 있으며, 중요 리스크로 평가됨. 또한, 밀, 대두, 유채씨는 발생 가능성도는 중간 정도지만, 영향도가 커 ‘중요 리스크’로 평가되었음.
- [국내 생산] 노동력·후계자 부족 리스크가 특히 노동집약적인 품목(과일, 채소,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표면화되어 ‘중요 리스크’로 평가되었고, 관계 인재·시설 감소 리스크는 많은 품목에서 표면화되고 있어 ‘주의 리스크’로 평가됨.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산 자재 중 유류 가격 급등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유류비 비율이 높은 품목(채소, 수산물 등)은 ‘중요 리스크’로 평가되고, 비료는 농산물 생산에 필수로 영향도가 크고, 대다수 품목에서 ‘중요 리스크’로 평가됨.
- [온난화 및 고온화 리스크] 대다수 품목에서 표면화되고 있어 ‘주의 리스크’등으로 평가됨.
- [가축전염병 리스크] 물가 대책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근 국가에서 지속해서 발생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한 장소의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중요 리스크’로 평가됨.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향후 계획>

- 이번 리스크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식량 안보에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해 한층 더 검증을 시행해 필요한 정책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량 안정공급에 관한 리스크 검증(2022),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7. 2022년 7월 11일자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업성 “「食料の安定供給に関するリスク検証(2022)」の公表について”(2022.6.21.)
(https://www.maff.go.jp/j/press/kanbo/anpo/220621_14.html)

IV. 글로벌

1. (2022년 7월) 최근 세계 식품물가 동향-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식량위기 압박

최근 유엔 산하 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기상 악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이어온 라니냐 현상에 따른 가뭄 등 기상 악화가 금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특히 빈곤 국가의 소득 감소 및 식량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이러한 추세는 빈곤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식품 물가 급등을 견인했고 인플레이션 심화로 유제품 등 생필품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식품가격이 10.1% 오른데 이어 동월 유로존의 식품가격도 8.9% 상승하며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영국의 시장연구기관인 IGD(Institute of Grocery Distribution)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여름 영국의 식료품 가격이 15% 상승하며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인플레이션 심화로 소비 주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충동구매 대신 필요한 것만 구입하면서 소비 자체를 자제하는 등 물가 급등으로 소비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유제품과 육류의 경우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하여 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 적게 사고 덜 쓰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 맞춰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소매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헤드라인 뉴스」 최근 세계 식품물가 동향, 「IDF Korea report」 2022년 2/4분기